

| 2014년 주님의교회 표어 |

주여, 나를 (롬 5:10)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함글함글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_롬 12:15

| 오늘의 말씀 |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2014년 2월 9일 주일 제 330호

발행인: 박원호

편집인: 김학원

발행처: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편집: 함글함글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웃음으로 맞는 봄날

2월 4일은 입춘, 봄으로 접어드는 날이다. 한 겨울 쉬었던 남천경로당 무료급식이 이날 다시 시작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찬을 드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드문드문 빈 자리가 보인다. 지난겨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자리다. 소식을 전하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사는 게 그런 거지.”하며 곱게 웃는 어르신 앞에서, 문득, 목이 맨다. 다시 봄이다.

함글함글

2014년 제직수련회

헌신으로 평화의 도구가 될 것 다짐

2014년 제직수련회가 1월 26일 주일 오후 3시 45분에서 6시까지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2014년 신임 서리집사와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까지 대예배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잠실교회 림형천 목사의 특강과 제직부서 소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섬김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림형천 목사는 제직은 성직이므로 선택이 아니라 맡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제직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몇 가지로 요약했다. 림 목사는 첫째 제직은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배

의 참여자, 섬김의 참여자가 되어야 함을 뜻하고, 둘째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셋째 말을 잘 다스려야 하고, 넷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섬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제직부서 소개에서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의 임원들, 신임 서리집사, 목양위원회, 교육위원회, 섬김위원회, 국제교육선교센타의 팀장들이 소개되었고, 이어 담당교역자와 교육목회원 교역자, 교사, 찬양대, 자치회 회장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올 한해동안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수련회를 마쳤다.

함글함글



1월 26일 열린 2014 제직수련회

📖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17

12세기 중세 여성 신비주의

12세기로 접어든 중세 유럽사회에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파리대학을 위시한 중세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중세 문화와 기독교에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해왔던 수도원 제도가 서서히 쇠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속적인 부(富)의 축적을 통해 비대한 조직으로 커가던 중세의 수도원 제도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성 프란시스(St. Francis of Assisi, 1182-1226)에 의해 창립된 프란시스코 수도회(1209년)나 1215년에 도미니크(Dominic of Caleruega)에 의해 창립된 도미니크 수도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외형적인 변화와 더불어 중세 유럽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기독교 신학과 교회 내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수도원 제도와 더불어 존재하던 사제나 수도사들의 엘리트주의가 극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12세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일반 성도들의 참회와 청빈을 강조하는 ‘사도적인 삶(Vita Apostolica)’, 즉 중세의 ‘복음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12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러한 새로운 중세 기독교의 움직임(Vita Apostolica)은 종전까지 기독교를 이끌어가던 핵심인 물들의 변화를 수반하기 시작했다. 엘리트주의를 서서히 극복해 나가던 12세기 중세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한 그룹이 바로 중세 여성신비자들(Medieval Women Mystics)이었다. 버나드 맥킨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이 기독교 신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부터이다. 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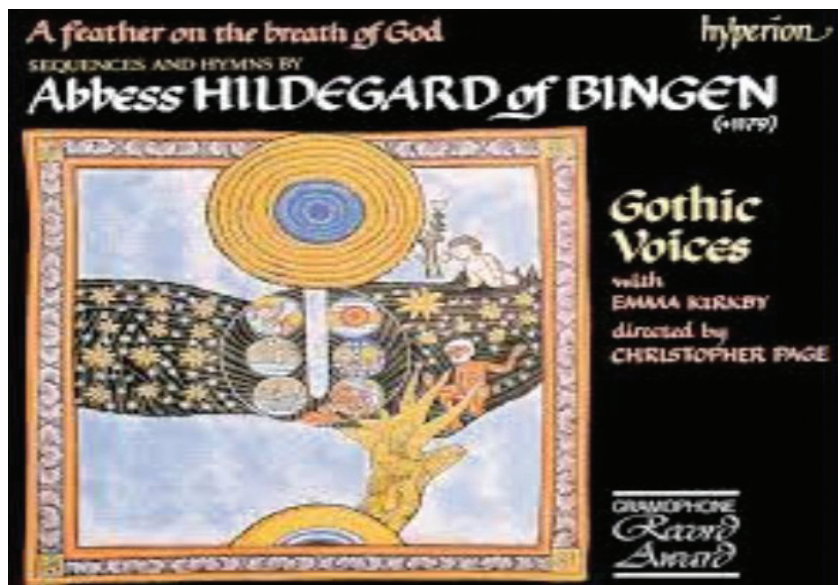
를 ‘암흑의 시대(The Dark Age)’로 표현하는 것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일방적인 판단이다. 합리성과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던 계몽주의자들에게 중세는 애매모호함과 모순의 시대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중세 시대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특히 중세 기독교는 12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신비주의자들의 활약으로 인해 남성지배가 고착화되

천년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이러한 여성신비주의자들은 남성중심의 중세 기독교가 구하던 이성적이며 사변적인 논리의 적용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였다.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잡한 신학사상의 섭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직접적이며 친밀한 관계였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고의

중세 여성 신비가의 대모가 바로 힐데가르드였다.

12세기에 접어든 중세교회는 정치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발판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중세 봉건제도와 결탁하여 안정과 보수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수도원 중심의 교회제도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면서, 프란시스코(Franciscans)와 도미니크(Dominicans) 수도회로 대표되는 개혁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새롭게 태동한 대학 중심의 신학 연구는 기독교의 새로운 지적 자양분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함께 등장한 여성신비자들의 교회에 대한 도전과 공헌은 2천 년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측면을 경이롭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많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중세 여성신비자들을 연구하는 동향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중세 여성 신비자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온고지신(溫故知新)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페미니스트 신학의 논리적 비약과 조급한 행동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음악전문가들이 빙엔의 힐데가르드 작품을 복원한 음반

어 있던 중세교회에 새로운 영성의 바람을 불어온 시기였다. 여성 신비주의자들의 대모(大母)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빙엔의 힐데가르드(Hildegard of Bingen, 1098-1179)를 위시하여 노리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 1342-1417), 시에나의 캐서린(Catherine of Siena, 1347-1380), 제노아의 캐서린(Catherine of Genoa, 1447-1510) 등의 눈부신 활약과 16세기 가톨릭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 1515-1582)의 업적은 2

대상이 아니라 느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교권은 이 여성신비자들의 하나님 체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악명 높은 중세의 종교재판(Inquisition)이나 금서목록(Index)을 통하여 이러한 여성신비자들의 견해를 견제하고 때로 혹독하게 탄압하기도 하였다. 심할 경우, 마녀재판을 통하여 많은 여성들을 화형에 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런 시대적 제약을 뛰어넘은 12세기

> 그동안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역사 이야기》를 애독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로 2천년 기독교 역사의 중간쯤에 당도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화동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이 되어, 이번 달부터 교회사역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허락하시면 다시 연재를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강찬 목사

📖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5

雅歌 (아가 The Song of Songs)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입에 달았도다(아가 2:1~3).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노래 중의 노래 즉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KJV 나 RSV는 Song of Solomon(솔로몬의 노래)로 번역하였다. 전체 8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雅(맑을 아. 예쁠 아): ‘뽀족한 송곳니’를 의미하는 牙(엄니 아)와 ‘몸집이 작고 꼬지가 짧은 새’를 나타내는 隹(새 추)가 합쳐 “송곳니 너머 목구멍에서 나는 새의 울음 소리가 맑고 우아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 참고로 몸집이 크고 꼬지가 길고 화려한 새는 鳥(새

조)라 하며 공통적인 의미로는 乙(새을)을 쓴다.

★歌(노래 가): ‘의미 있는 소리’를 뜻하는 聃(소리 가)에 ‘입 벌리다’의 뜻이 있는 欠(하품 흠)을 결합하여 “운율 있는 소리가 벌린 입에서 나오니 노래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함글함글

☉ 선교 간증 > 캄보디아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나는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의 캄보디아의 파일린으로 단기선교활동을 다녀왔다. 하나님이 일찍이 보잘것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당신의 귀한 사역에 조금이나마 쓰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번 나의 작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나누어 보았으면 한다. 나는 이번 선교활동을 통하여 지난날 지식적으로 또한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가슴으로 품으며 삶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선교활동을 떠나기 전 가겠다고 결심은 하였으나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출발하였으나 선교현장에서의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았으며 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도구삼아 당신의 일을 한 치의 오

차 없이 행하셨다.

첫째, 내가 아는 분이라고는 현지 선교사 단 한 사람을 만나러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20여 분의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심지어 지난 2002년 우리 교회가 의료선교를 갔던 바탐방이라는 도시 뉴라이프처치의 분토엔 목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 교회가 그동안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만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또한 현지 한국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선교활동의 모습과 애로사항, 한국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현지선교의 문제점들을 선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주셨다.

둘째, 어떻게 선교할지 그 방법을 몰라 고민할 때 우연히 만난 단기선교사를 통하여, ‘안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다. 나이 드신 분 수백 명에게는 돋보기안경을, 파일린의 중

고등학교 학생 60여 명에게는 학생용 안경을 맞추어 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기회를 주셨다.

셋째,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가 절실하여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교회 유승하 집사님 내외를 이곳 선교지에 보내 주셔서 지난 추석 때 3박4일 동안 150여명의 어린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넷째, 우리는 흔히 선교는 전문 선교사 즉 목사 및 선교사만이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 선교의 중심은 목회자 선교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이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고로, 한국 선교사 500여 명 중 장로 선교사 50여 명이 사역중이다.

다섯째, 활동 중에 주님께서는 생명과 안전도 지켜 주셨다. 사실 그 지역은 말라리아, 특히 Dengue열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번창하고 있던

지역이어서 심적으로 늘 부담을 갖고 있었으나 보호하여 주셨고, 또한 2번의 교통사고 위험 속에서도 안보하여 주셨다. 또한 20년만의 대홍수로 온도시가 물에 잠겨 수많은 인명과 가축이 큰 피해를 입은 와중에, 나 역시 더러운 물에 왼발이 오염되어 현지 치료가 불가능했을 때, 방콕으로 급히 후송되어 외국인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되돌아보면 순간순간의 염려와 걱정들이 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6).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땅 끝까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 선교의 사명자가 되었으면 한다. **장일형** 장로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예배, 예식 용어 편 2

대예배(X): 주일 예배(O)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속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는데 있어서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주일, 1부, 청년 등으로 구분하는 게 옳다.

열린 예배(X): 열린 집회, 찬양예배(O)

‘열린 예배’라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래 ‘구도자예배’(Seeker’s Service)로 알려진 집회의 한 형태인데, 불신자들을 배려하는 형식과 접근방법을 택한 구도자의 집회이므로, ‘집회’라 부르는 것이 옳다. 때로, 젊은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예배를 ‘열린 예배’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찬양예배’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열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는 ‘닫힌 예배’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준비찬송(X): 사용할 수 없음

교회에서 “다 같이 준비 찬송을 부르면서 앞자리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곡을 붙인 성도들의 경배의 표현이며, 기도이며,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고백과 결단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찬송을,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찬송’이라는 용어는 마땅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배/예식/기도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함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행위이다. 예배의 목적이나 대상이 인간이서는 안 되므로, 예배/예식/기도회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돌, 회갑, 추도, 입학, 졸업, 결혼, 입당, 임직, 교회 창립 등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식으로, 기도를 목적으로 모이는 수요 저녁, 금요 철야, 새벽 모임 등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헌금(X): 봉헌(O)

역사적으로 볼 때, 봉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성도들의 모든 형태의 응답적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순서를 즉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를 말하는 ‘헌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봉헌의 의미를 아주 축소시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울 정리

섬기는 손 1



낮선 땅 이국에 코리안 드림의 푸른 희망을 안고 왔을 중국 교포입니다. 형제가 한국에 나와, 형이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적십자 병원에서 이 분의 발을 마사지하면서, 그 고단했을 지난날들이 여원 발 이곳저곳에 묻어 있음을 느낍니다. 2월 3일 만난 이 환자는 결국 다음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섬기는 이 손, 고단한 삶을 마치고 천국 가시는 분들을 배웅하는 우리의 따뜻한 손입니다.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박혜진 권사 (010-2825-77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줄함울**

> 이 면은 교회의 세대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번호에는 고등부에서 기획, 취재, 편집을 맡아주었습니다. **함줄함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고등부 겨울 수련회

지난 1월 19일 주일, “One Thing”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80여 명의 학생과 30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 양주 예담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중등부에서 올라온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은 처음엔 서먹서먹하고 어색해했지만 금세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며, 여러 공동체 훈련들은 물론이고 기도회와 찬양집회를 모두 소화해냈습니다. 네 번의 집회와 두 번의 특강, 그리고 이어진 여러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이 다소 지칠 수도 있었지만, 한 명의 학생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모든 예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후 이어진 간증파티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용기 있는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에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고등부 수련회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슈퍼스타’ 프로그램은 방송 프로그램 ‘슈퍼스타K’를 패러디한 것인데, 각 조에서 하나씩 장기자랑을 준비하여 둘째 날 저녁 집회 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달리, 각 조마다의 끈끈한 결속력과 팀워크, 그리고 고3 조장들의 리더십으로 아이들은 푹푹 뭉쳐 열심히 준비했고, ‘슈퍼스타’ 시간에 저마다의 놀라운 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박 3일의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우리는 “One Thing”, 단 하나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 학생들도 단 하나의 것,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래에, 학생들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김예지 교사



솔직히 작년 여름 수련회 때까지만 해도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회장이 된 계기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련회 기도회 내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나는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2014년 고등부 회장으로써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유요한 2학년

이번 겨울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단순히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친해지는 것을 떠나 하나님께 한결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다. 평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일부러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수련회에서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뛰며 찬양하고 소리 내어 기도했다. 내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닌, 더욱 변화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더 변화될 수 있고 더 성숙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

김준철 3학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 같다. 전엔 개인을 혹은 주변인들만을 위했다면,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법을 기도하기 보다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김준희 1학년

내 자신의 모습이 중등부 때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에너지가 넘쳤고, 마음의 열정을 다 태운 것 같았다. 특히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릎 꿇고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잠자코 있던 신앙을 온 몸 밖으로 분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들었기에 보람찬 수련회였다.

권도형 1학년

이번 수련회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수련회였다. 찬양할 때

도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박수만 치고 있었을 나였는데,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뛰면서 찬양을 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다. 이번만큼은 내 인생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들이 모두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척 커진 기분이었다. 이번 수련회 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고3이 되면서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느끼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진짜 예배가 뭔지를 깨달았다.

전윤식 3학년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과 한번 열정이 식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잡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걸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나시는 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민영 2학년

나는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싫

었다. 뜨거운 열정이 아닌, 의무감으로 다니는 교회는 피곤하기만 했지 힘이 된다고는 듣지 못한 적이 없었고, 늦잠 자고 싶은 주일 아침에 깨우는 엄마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강현규전도사님께서 설교 중에 “날 위해 늘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라는 말씀이 크게 와 닿았다. 모태신앙이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가족들의 기도가 너무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QT를 하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친구들을 위한 기도도 한다. 내가 받은 기도의 든든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련회를 통해 조금은 변화했고, 그 변화로 주변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

조예원 1학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뭔가 뜨거운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욱 더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길 바란다.

김지윤 1학년

신임교역자 소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해 교역자 여섯 분이 부임했습니다. 주님의교회 가족으로 반갑게 맞으며, 평화의 도구가 되는 길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힘 있게 걸어 나가는 2014년

세 아이를 아내와 함께 양육하면서 기도하며 고민했던 경험과 가정 위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2030교구 성도님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넘쳐흐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소망이 가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2030교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2014년 한 해를 힘 있게 걸어 나가고 싶습니다.

문희삼 목사 / 2030교구



겸손과 열정으로

주님의교회 청년부에서 쓰임 받게 된 것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겸손함으로 그러나 또한 열정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우리 청년들을 섬기겠습니다. 3포세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요한 전도사 / 청년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귀한 공동체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세상을 밝히고 맛내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진심과 성실로 교회와 부서를 섬기기에 힘쓰겠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양은영 전도사 / 소년1부



선교적인 비전과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들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와보니 기대 이상으로 예배 분위기와 모든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통하여 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EM(영어사역부)에 몸담고 있는 동안 주님의 교회 어린이들이 선교적인 비전과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벅찬 가슴으로 교회를 섬기는 박찬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박찬 전도사 / 영어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주님의교회의 청년부를 제가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2014년을 맞이하며 감사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시대의 소중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롬^^

김민섭 전도사 / 청년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심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항상 함께 하고 있었음을 감히 고백하게 됩니다. 좀 돌아왔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을 예비해주셨고, 그곳은 바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되고, 그로 인해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정명원 전도사 / 2030 부부교구, 국제교육선교센터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이사야 편

* 두 구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 | | | |
|---|--|--|
| 1.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라 하리라 (사7:14) | 4.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사30:21) | 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43:1-2) |
|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이시며 나의 ○○시며 나의 ○○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사12:2-3) | 5.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40:31) | 7.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이니 (사55:8) |
| 3.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이 켜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사18:4) | 6.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하였고 내가 너를 ○○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 | 8.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 ○○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 ○으로 그 근심을 대신 하시고 (사61:3) |

포마 인터뷰 | <11살의 유서>의 저자 김은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새 동안 굶주리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 엄마와 언니를 기다리다가 쓴 열한 살 소녀의 기록, 탈북하기 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11살의 유서>의 저자 김은주 양을 만났다.

“이렇게 굶다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혹시 내

가 죽더라도 엄마가 돌아와서 내가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쓴 글이었습니 다.” 굶주림의 땅을 뒤로 하고 열세 살에 탈북, 3년 만에 체포되어 북송되었다가 다시 탈북해서 한국에 오기까지 9년 동안 객지에서 모진 고생을 한 모습이기에는 너무 애틋하다.

“두 번째 탈북을 해서 중국 땅을 헤맬 때, 어떤 조선족 아주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라’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하나님’이었으나, 이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모진 고초를 견뎌 낸 강단이 말끝마다 야무지게 물어난다. 지금은 학업과 알바에 바쁜 대학원생 남자친구가 있고, 졸업 후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교 졸업반이다. 서강대에서 중어중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주님의교회에 출석한 지 석달이 되었다.

함글함글

‘비움’은 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평화”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을 밝히는 말씀이며, 교회의 근본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성도의 성도됨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으나 평화가 쉽지 않은 까닭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양보하거나 용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놓은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전 10:33)고 권면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최고의 영광이요, 찬사인 것입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능력은 스스로를 비우는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을 본 받아, 자신의 유익, 편 가르기와 탓하기, 나만이 옳다는 “자기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 됨과 의의 은총을 우리 안에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단신

중보기도자 서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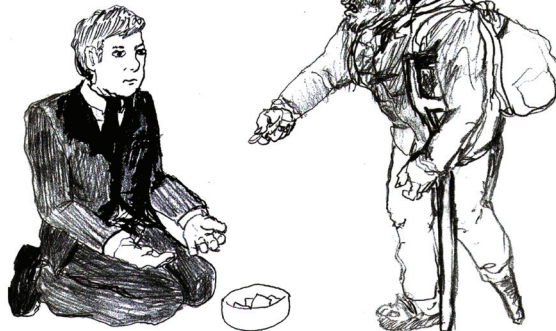


2014년 1월 19일 2부예배에서 중보기도자 서약식을 했다. 중보기도자의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 헌신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중보기도실에서 드려지는 기도제목은 하나님께만 아뢰고 모든 기도내용은 비밀로 철저히 지킬 것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카툰

눈이 안보인다니,
안타깝네요



늘푸른대학 제6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늘푸른대학
NEULPUREUN COLLEGE
2009

개강 : 2014. 3. 4.(화) 오전 10:30

- | | | |
|---------------------------------------|---------|---------------------------------------|
| 입학안내 | ■ 대 상 | 만 65세 이상 교인 및 지역 주민 |
| | ■ 등 록 | 2014. 2/16(주일), 2/23(주일) - 선착순 200명 - |
| | ■ 등록장소 | 주님의교회 1층 로비 접수처 |
| | ■ 등 록 금 | 4만원 / 후원금 : 1만원 |
| ☑ 등록학생은 “생명살리기 캠페인” 후원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 | |
| 학사일정 | ■ 1학기 | 3/4 - 7/1 (매주 화) -17주- |
| | ■ 2학기 | 9/2 - 12/2 (매주 화) -13주- |

교회사역일정

- | | |
|---------------------------|-------------------|
| 2. 18(화) : 예수친구사역 개강 | 3. 5(수) : 참회 수요일, |
| 2. 21,22(금,토) : 겨자씨인도자수련회 | 겨자씨 인도자 개강 |
| 3. 4(화) : 양육클래스 개강, | 3. 7(금) : 금요기도회 |
| 늘푸른대학 개강 | |